

AI가 너무 많이 아는 세상, 그런데 왜 아직도 사람에게 배울까?

와...

AI는 진짜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아직도
사람에게 배워야 하나요?

AI는 책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명시지**'입니다.
문서에 쓰여 있고,
데이터로 정리되어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이지요.
하지만 '**암묵지**'는 다릅니다.
오랜 경험 속에서 생기는 판단,
직관, 노하우입니다.
이건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현장에서
몸으로 익혀야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

문서를 백 번 읽어도
한 번 해보는 것만
못하지요.

논문

보고서

통계

매뉴얼

기사

사례

Q&A

DATA

사람의
경험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

명시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



문서



데이터



매뉴얼

글과 데이터로 정리되어
누구나 보고, 전달하고, 연결할 수 있는 지식

암묵지 (쉽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식)



경험



직관



판단



노하우

오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몸으로 익힌,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지식

“

현재 AI는 명시지의 범위와 처리 능력에서
이미 인간 개인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중요하게 볼지는
아직 사람에게서 배웁니다.

”

NEWS

좋은 기사는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사람의 경험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

AI가 기사를 써준다고요?

그럼 기자는 이제 필요 없을까요?

좋은 질문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

AI가 기사를 다 써주는데
이제 기자는 정말
필요 없는 건가요?

기사는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기사로 삼을지,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는 것은
아직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여전히 필요하고,
오히려 더 다양한
사람이 기자가 될 수 있어요.

AI는 '기사의 형태'는
빠르게 만들어주지만,
'무엇을 쓸지'는
사람에게서 배웁니다.

지금, 누가 기자가 되는가?

이름 뉴스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기사를 만듭니다.

일반 구성원 (직장인·시민)

예비 기자 (학생·취업 준비생)

현직 기자

데스크 (편집 책임자)

장·중년 세대 (경력 전환·지식자산화)

다른 분야 전문가 (연구자·현장 전문가)



일상에서 발견한
주제를 기사로
만드는 능력을
AI가 도와줍니다.
누구나 기자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기사의 구조와
판단 과정을 보며
빠르게 배울 수 있고,
실습과 훈련을
도와주는 좋은
파트너가 됩니다.

반복 업무는 줄이고
취재와 판단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AI는 취재 보조이자
생각을 정리하는
파트너입니다.

여러 사람의 결과를
검토하고, 편집 기준을
적용합니다.
품질관리에도
AI가 도움이 됩니다.

수십 년의 경험과
한장 지식이
AI를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조, 의료, 교육,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문 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선이
새로운 기사를 만듭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빨리 성장합니다.

더 깊이,
더 중요한 기사에
집중합니다.

좋은 기사의
기준을 지킵니다.

경험이
지식자산이 됩니다.

전문가의 시선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듭니다.

“

AI는 기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더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기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자는 달라집니다.

”

사람의 경험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

AI는 도구이고,
좋은 기사는
사람의 경험과 판단에서 시작된다.

사람
경험
판단
좋은 기사

AI로 기사 쓰기, 다 같은 AI일까?

도구는 비슷해 보이지만, 깊이와 결과는 다릅니다.

좋은 기사는
좋은 질문에서
시작된다.

AI로 기사도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아무 AI를 쓰면
되는 거 아니가요?

도구는 비슷해 보여도
기자의 목적과 과정에 맞게
설계된 AI가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AI는 속도만으로는
좋은 기사를 만들 수 없어요.
무엇을 취재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관점에서 쓸 것인가는
사람의 경험과 판단에서
나오거든요.

AI는 '기사의 형식'을
빨리 만들어주지만,
'무엇을 쓸지'는
사람에게서 배웁니다.

아이디어
자료
구성
사실확인
초안

PRESS

AI

사람의
경험이
더 좋은 기사를
만든다.

지금, 어떤 도구가 필요한가?

AI는 기자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기사를 쓰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1 일반 AI

(누구나 바로 쓰는 범용 대화형 AI)



- ✓ 질문에 답하고, 초안을 빠르게 생성
- ✓ 일반적인 정보 정리와 요약에 강함
- ✓ 다양한 주제에 폭넓게 활용 가능

장점

- ✓ 빠르고 간단하다.
- ✓ 아이디어나 초안을 얻기 좋다.

한계

- ✓ 기자의 의도와 맥락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사실 확인과 관점의 깊이가 부족하다.

2 범용 기사쓰기 SaaS

(기사 작성 기능을 제품화한 서비스)



- ✓ 기사 형식과 구조를 쉽게 만들어줌
- ✓ 반복 업무를 자동화해 효율을 높임
- ✓ 일정한 품질의 기사를 빠르게 생산

장점

- ✓ 기사 형식과 문장 완성도가 높다.
- ✓ 업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계

- ✓ 기자의 관점과 조직의 기준이 반영되기 어렵고, 맥락이 얇은 기사가 많아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기 힘들다.

3 이음 뉴스룸

EEUM NEWSROOM

기자와 데스크의 경험과 판단을
구조화한 저널리즘 특화 AI



- ✓ 기자와 데스크의 취재 경험과 판단 기준을 학습
- ✓ 우리 조직의 관점과 스타일을 반영한 기사 생성
- ✓ 사실 검증, 자료 연계, 맥락 분석까지 통합 지원
- ✓ 된 기사로 끝나지 않고, 지식자산으로 축적

장점

- ✓ 우리 조직만의 관점이 담긴,
- ✓ 신뢰도 높은 기사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다.

한계

- ✓ 조직의 경험과 기준을 함께 구축하는 도입 과정이 필요하다.

아, 그래서 이음 뉴스룸은
단순히 기사를 써주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관점을 함께 쌓아가는
파트너군요!

맞아요!
이음 뉴스룸은
기자의 경험을 학습해
우리 조직의 시선으로
더 좋은 기사를 만들어갑니다.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판단이
쌓이는 뉴스룸이야.
그래서 결과가 다르지.

사람
현장
맥락
좋은 기사

“

AI는 기사를 더 잘 쓸 수 있지만,
좋은 기사는 사람의 경험과 판단에서, 그리고 그 경험을 함께하는 AI에서 만들어집니다.”

”

사람의 경험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

AI가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이음 뉴스룸은 필요 없을까요?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의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AGI나 ASI가 오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할 텐데,
그때도 이음 뉴스룸이
필요할까요?

AGI는 방대한 정보를
스스로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지만,
무엇을 중요한 문제로 볼 것인지,
어떤 관점으로 해석할 것인지는
여전히 사람과 조직의 몫입니다.

AI가 더 똑똑해질수록
사람의 경험, 가치, 철학이
더 중요해집니다.
좋은 기술이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음 뉴스룸은
지금보다 더 필요합니다.

AI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사실
정보
맥락
경험
판단
가치

좋은 질문이
좋은 사회를
만든다.

AI의 발전과 이음 뉴스룸의 역할 변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음 뉴스룸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의 AI (생성형 AI)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빠르게 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경험과
판단을 배웁니다.

AGI (범용 인공지능)



다양한 정보를 스스로
이해하고 연결하며,
복잡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고방식과
판단 구조까지
모방할 수 있습니다.

ASI (초지능)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으로
새로운 지식과 해결책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인간보다
뛰어나지만,
가치와 목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음 뉴스룸의 역할



사람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
다양한 관점과 가치, 사회적
맥락을 담아 AI가 다루기 힘든
'의미 있는 질문'과 '좋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식 파트너입니다.

이음 뉴스룸이 지켜야 할 것



사람의 경험과
현장성



다양한 관점과
균형 있는 판단



판단의 이유와
가치



사회의 맥락과
미래 지향점



더 나은 질문,
더 나은 사회

결국 AGI, ASI 시대에도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던지는 질문과
그 질문을 뒷받침하는
경험과 가치네요.

맞습니다.
AI는 더 많은 답을 줄 수 있지만,
'어떤 답이 좋은가'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이음 뉴스룸은
그 기준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좋은 기술이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사람의 질문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 좋은 질문을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

AI의 발전은 놀랍지만,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힘은 여전히 사람의 질문과 가치에서 시작됩니다.”

”

경험
관점
판단
가치
더 좋은 사회

AI가 더 똑똑해질수록
사람의 질문이 더 중요해진다.
좋은 질문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

사람의 경험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

지금 쌓는 것이 내일의 차이를 만듭니다.

좋은 기사는 하루의 뉴스로 끝나지만,
지금 쌓는 경험과 판단은 우리만의 AI를 만듭니다.

지금 쌓는
사람의 경험과 판단이
우리 조직만의 AI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음 뉴스룸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쌓아야 할까요?
좋은 기사를 많이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좋은 기사를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경험과 판단, 그 이유를
체계적으로 쌓아 조직의
지식자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쌓는 것이 곧 우리만의 AI가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왜 쓰느냐네요.
지금 우리가 기록하고 정리하는
경험과 판단이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유지하는
우리 조직만의 자산이
되겠군요.

AI는 정보를 배우지만,
사람은 경험과 판단,
그리고 그 이유를
남깁니다.

경험
관점
지식
판단
가치

NEWS

이음
뉴스룸

좋은 기록이
더 좋은
미래를 만든다.

이음 뉴스룸이 지금 쌓아야 할 다섯 가지 자산

지금 쌓는 경험과 판단이
우리 조직만의 AI, 더 나은 사회로 이어집니다.

1 취재 경험

현장에서 보고 느낀
생생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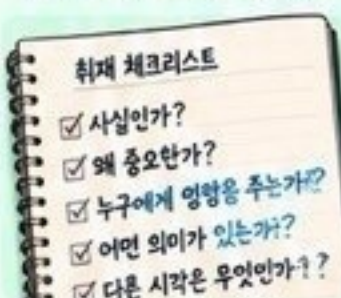


- ✓ 현장의 목소리와 맥락
- ✓ 사람을 만난 이야기
- ✓ 숫자 뒤에 있는 실제 삶
- ✓ 반복 취재를 통한 변화 관찰

현장의 경험이
기사의 깊이를 만듭니다.

2 판단 기준

무엇을 중요하게 볼 것인가



- ✓ 사실과 해석의 구분
- ✓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준
- ✓ 다양한 관점의 균형
- ✓ 우리만의 질문 리스트

판단 기준이
기사의 방향을 만듭니다.

3 조직의 관점

우리가 지향하는 시선



- ✓ 조직의 미션과 가치
- ✓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 ✓ 지역과 현장을 보는 시선
- ✓ 장기적 관점의 기획 방향

조직의 관점이
기사에 일관된 힘을 줍니다.

4 분야 전문가의 지식

더 깊은 이해와 해석



- ✓ 전문가 인터뷰와 자문
- ✓ 연구자료와 통계 해석
- ✓ 다양한 분야의 지식 연계
- ✓ 복잡한 이슈의 구조화

전문가의 지식이
기사의 신뢰를 높입니다.

5 판단의 이유와 가치

왜 쓰고, 무엇을 바꾸려는가



- ✓ 선택의 이유와 근거
- ✓ 사회에 주는 의미
- ✓ 우리가 지키고 싶은 가치
- ✓ 기대하는 변화와 미래

판단의 이유와 가치가
좋은 기사를
지식자산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기사 아카이브



주제별 데이터베이스



지식 네트워크



조직 학습과 교육



우리만의 AI 서비스

이렇게 쌓으면
지금의 기사 하나가
내일의 더 큰 변화를
만드는 자산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지금 쌓는 경험과 판단이
우리 조직만의 AI를 만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좋은 기사는 하루를 바꾸지만,
잘 쌓인 지식자산은
사회의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 우리가 쌓아야 할 때입니다.

“

좋은 기사는 오늘을 바꾸지만,
잘 쌓인 지식자산은 내일을 바꿉니다.

”

지금 쌓는 경험과 판단이
우리만의 AI를 만들고,
더 나은 사회로 이어집니다.

사람의 경험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

경험
관점
지식
판단

더 좋은 세상

지금, 함께 시작할까요?

이음 뉴스룸이 함께하겠습니다.

사람의 경험이
좋은 기사로,
좋은 기사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사람을 만나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지금, 당신의 이야기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음 뉴스룸은
어떤 조직이, 어떻게
시작할 수 있나요?

누구나,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주제부터 시작해도,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좋은 질문을 좋은 기사로
만들어, 더 좋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때입니다.
이음 뉴스룸이
그 시작을 돕겠습니다.

AI는 도구,
사람은 방향,
이음 뉴스룸은
그 연결입니다.

더 나은
질문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듭니다.

이음 뉴스룸의 대상 조직

공공에서 민간까지, 다양한 조직과 함께
지역과 분야의 이야기를 지식자산으로 만들어갑니다.

공공·지자체



정책과 현직의 이야기를
연결해, 더 나은 행정을
지원합니다.

지역의 변화가
시민의 일상으로
이어집니다.

공공기관·교육기관



기관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정리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합니다.

지식이 모여
미래 인재를
키웁니다.

기업·산업



산업과 시장의 변화를
읽고, 기업의 전략과
브랜드를 지식자산으로
만듭니다.

좋은 이야기가
더 큰 기회를
만듭니다.

연구기관·대학



연구와 교육의 성화를
사회와 연결해
지식의 활용을
확대합니다.

지식이 사회와 만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연론·미디어



더 깊이 있는 취재와
분석으로 공론장을
확장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듭니다.

좋은 저널리즘이
신뢰하는 사회를
만듭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1

상담·진단



조직의 목표와
현황을 함께 듣고
방향을 진단합니다.

2

기획·설계



주제와 범위를 정하고
맞춤형 뉴스룸 운영
계획을 설계합니다.

3

실행·운영



AI와 사람이 함께
취재·분석·콘텐츠 제작을
진행합니다.

4

확산·성과화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통해
지식자산을 확산하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갑니다.

함께 만드는 변화



조직의 소통 강화



정책과 전략의 고도화



브랜드와 신뢰도 향상



지식의 사회적 확산



더 좋은 사회로의 기여

지금 시작하면
우리도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네요.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음 뉴스룸이
함께하겠습니다!

좋은 기사는 결국
사람을 만나고,
사회를 바꿉니다.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사람의 경험이 모이면 좋은 기사가 되고,
좋은 기사가 모이면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

좋은 질문이
좋은 기사를 만들고,
좋은 사회를 만듭니다.

지금,
이음 뉴스룸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사람
경험
질문
연결
변화

경험
관점
연결
실천

더 좋은 세상